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6.01.14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2026년 유럽 연구혁신 정책 전망(1.8)

- (Q1) 유럽 혁신 규제 패키지(유럽혁신법 등) 공개 및 호라이즌 유럽 마지막 2년 본격 착수, (Q2) FP10·ECF 제도 설계 협상 가속, 유럽의회 및 이사회 프로그램 구조·방향성에 대한 입장 도출 추진, (Q3) ERA 법안 등 연구 시스템 개혁 입법 공개, 집행위 양자기술법·생명공학법 제안, (Q4) 제도 정비 및 FP10·ECF 기관 간 협상 진입 등

○ 혁신적인 스타트업·스케일업 기업이 EU를 떠나는 이유(1.12)

- 최근 유럽투자은행(EIB)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연구는 혁신 스타트업·스케일업이 EU 밖으로 이전하는 주요 이유로 벤처캐피털 접근성, 대규모 통합 시장 접근, 유리한 규제 환경, 상업·영업 인재의 풍부함 등이 공통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
- 디지털·딥테크, 바이오테크, 클린테크 등 전략 산업 분야 기업들은 EU가 혁신 친화적 규제 강화, 성장 자본 접근성 개선, 국제 인재 유치·유지 여건 강화, 국제적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

○ EIC의 보조금+지분투자 혼합형 자금지원 방식이 과학 스타트업에 효과적(1.12)

- 유럽혁신위원회(EIC)와 같은 보조금+지분 투자 형태의 혼합형 자금 지원 방식이 과학 기반 스타트업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옴
- 과학 기반 혁신은 새롭고 영향력이 크며 기대 가치가 높아 VC의 신속한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 반면, 시장 검증이 늦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가 초기 투자에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음
- 연구진은 정책적으로 단순히 VC 유치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, 과학 기반 스타트업에 자금이 '조기에'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

- (기타) ▲Erasmus+ 프로그램 예산 확대 요구(1.8) ▲2026년 사이버 전쟁 전방위 확산 ... AI 에이전트와 우주 위성 공격이 핵심(1.12) ▲미국 다수의 국제 연구 기술 기구 탈퇴 결정(1.8) ▲(행사) Horizon Europe CL4 정보 설명회(1.29~1.30)